

“후문앞 일방통행 합시다”

학생처·총학 본격 활동 ... 제일병원, “당장 시행할 수 없다”

충분한 협의뒤 이용자 불편 없애도록 해야

서울캠 후문앞이 많은 사람들과 차량의 이용으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학생처(처장=오정수·산림자원학과)와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이하 총학)등에서 일방통행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후문앞은 양방통행체제로 녹두사거리에서 후문까지 1백여미터 남짓한 도로는 폭이 좁고 학생들이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통행 차량이 많을 경우 발뺌기가 힘들 정도로 혼잡해져 시민과 학생들은 물론 운전자들에게까지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처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관련 민원을 서울시, 중부경찰서, 중구청 등에 제출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일방통행을 위한 민원을 제출했으나, 필동과 목정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유보가 된 상태”라며 “이번에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일방통행을 실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총학생회 또한 일방통행에 관한 안전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했으며, 다음달 초부터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

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화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조성이후 총학은 관계기관 민원접수를 시작으로 항의방문 등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방통행문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정(수교4) 학생복지위원장은 “일방통행은 단순한 차량의 통행문제가 아니라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며 “후문 앞에 서 영업중인 상가 앞으로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제일병원 측은 일방통행문제를 올 7월 이후로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삼성제일병원 지원과의 이기적인 과정은 “현재 진행중인 주차장 확장공사가 6월말 끝날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일방통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측통행국가에서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는 신라호텔앞의 사정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삼성측의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의 발로라 여겨진다. 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혼잡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방통행문제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녹두사거리에서 후문으로 올라오는 길은 양방향으로 자동차가 가득차 있어 사람들이 다니기에 위험스러운게 사실이다.

지면안내

패러디문화 알아보기 7면

‘덱벼라 쫄신’, 이상한 느낌의 이말은 패러디 문화의 대표적인 주자 중의 하나인 ‘판지일보’의 사이트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말이다. 어지러운(?) 세상때문인지 갈수록 범람하고 있는 패러디. 그 실체를 진단해 보고 대학내 패러디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서울캠 4차 등협 무산 이유와 전망 2면

‘한겨레신문’ 이대로 안된다 5면

이제 우리도 어엿한 정기자! 6면

한국에네이션이 나아갈 길 7면



자기마음을 들여다 볼 때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우리가 낱이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마음을 일으키고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행위의 주체가 마음이라는 뜻이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행복이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써야 한다고도 한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들린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한다. 우리 눈은 다른 형태를 잘 분별하면서 다른 자신의 눈은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다른 것을 잘 헤아리면서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눈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다. 눈과 마음을 대상화시키면 그 대상이 된 눈과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눈이 거울에 비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처럼 마음도 자신의 마음을 대상화시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밖으로 향하는 모든 인식기관을 안으로 돌려 내면반조하면 자신의 마음을 환히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마음의 깨끗한 곳 더러운 곳, 건강한 곳 병든 곳 등을 낱낱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살펴 병든 곳, 더러운 곳이 있으면 어떻게 낱게하며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은 갈래로 닦거나 빨면 된다. 그러면 더러운 마음은 무엇으로 어떻게 닦고 세척해야 하는가?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여 나타나는 행위는 몸으로나 말로 표현된다.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행위가 발생하므로 행위를 통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다. 즉 업을 잘 짓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하는 것을 마음 닦는다고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잘 써야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이 청정해지는가? 화엄경에서는 항상 큰 원을 가지고 원에 의해 행동해야 함을 자세히 교설하고 있다. 항상 원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권노갑 동문 20대 총동창회장 취임

지난 19일 정기총회서 추대 ... “학교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권노갑 총동창회장

지난 19일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권노갑 동문 20대 총동창회장이 취임했다.

송석구 총장, 황명수 전 동창회장 이금규, 황규선, 김영구 의원 등 본교 출신 여야 의원과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등 4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고 △회칙개정 △신임회장 취임 인사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황명수 전 회장은 총동창회와 학교로부터 각각 공로패를 받았으며, 송석구 총장은 동창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황명수 전 회장은 “신임 회장이 모든 동문의 지원과 힘을 받

아, 동창회와 학교발전이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권노갑 신임 회장은 “최선의 노력으로 16만 동국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발전을 이룩한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모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석구 총장은 “지난 6년여간 본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황명수 전 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신임 권 회장에 전임회장 못지않게 동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총련 대대회 오늘부터 진행

의정선거 2개선본 출마

7기 한총련 건설을 위한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2일)과 내일(23일)이틀동안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서총련)의 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12기 서총련 의장을 선출하는 이번 대의원 대회는 서총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임시체계보고 및 의장 선출 △총노선 토론 및 의결 △대의원대회 보고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서총련의장 선거에는 현 임시의장인 이성희 흥익대 총학생회장과 여준호 경희대 총학생회장이 출마했다.

북경외대와 학술교류협정 활발한 교류 기대

본교는 지난 19일 46번째로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자매대학이 된 북경외국어대학교는 1941년에 설립되어 외국어관련 7개 학부와 8개 학과 및 3개의 외국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백여명의 교수와 4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외국어 전문대학이다.

양교는 본격적인 학술교류에 앞서 우선적으로 △교환학생 파견 △중국어 연수 등의 학생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 사 령	
◇임 정기자	▲양경인(불교대 불교학부2)
	▲송재훈(경상대 경제통상학부2)
	▲김미영(인문대 한국어국문학부2)
◇의원면직	▲최은진(문과대 영문2)
	-이상 3월 22일자
알 림	
수습기자 선발때문에 29일자 신문은 쉽니다. 다음신문은 4월5일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산학연협동 시대 활짝 열린다”

창업보육센터·산학연 컨소시엄 등 선정

본교가 지난 1월 서울시와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내어 멀티미디어·문화예술포아 사업자로 선정되어 4억 2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아이디어는 갖추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희망자를 일정기간 입주시켜 기업화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창업의 장을 말한다.

본교의 창업보육센터는 기본 기술은 있으나 상품화·기업화 되지 못하고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예술포아를 상품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분야 기술을 축적하여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육성에 이바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본교는 영상정보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선정, 이미 경상대학 부설기관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B.S.C시설과 함께 연극영상학과, 광고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멀티미디어 중심의 학부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등으로 구성된 정보산업대학이 정보기초기술을 담당기로 했다. 경상대학의 정보관리학과는 이러한

기술의 상품화·기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대학이 축적한 기술경영기법을 창업보육센터를 통하여 사회로 환원함으로써 대학과 기업이 동반 발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을 비롯해 △대학의 체계화된 이론, 기술, 경영분야의 연구업적을 기업화, 상품화로 구체화 △기업이론 및 실무교육의 기회 제공 △산학공존으로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장 제공 △대학의 실험 및 연구 기자재를 기업화 상품화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정보관리학) 정보관리처장은 “창업보육센터가 학교에 있음으로써 많은 학생들에게 창업의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산·학·연 컨소시엄구성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계획에서 12개의 참여대학 중 서울시립대, 광운대, 숭실대와 함께 본교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의 애로기술과 신제품개발사업에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 제단체가 연계한 공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한다는 취지에 이루어진 산학 컨소시엄은 93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도 시작되었다.

본교는 이번 선정에 대비해 지난 97년 4월 산업기술연구원 장단기 발전모형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98년 6월 2일 산학협동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세미나와 학술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Y2k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학술교류와 기업인력간의 교류를 꾸준히 진행, 기업 경쟁력 제고를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산학협동협의체 산하에는 98개 업체가 연계되어 있다. 이번 컨소시엄 참여 최소조건으로 7개업체에서 10개내지 15개업체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명시된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선정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번에 제출한 프로젝트는 모두 12개로 참여기업과 본교 연구책임자 선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본격적인 컨소시엄이 시작되는 5월부터 내년 4월초까지 1년간 4억여원이 지원돼 본교 산·학·연의 활발한 연대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부

수습기자 모집광고

정론직필을 함께 열어갑시다



옳은 것을 옳다하지 못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지 못하니, 저는 이제 동대신문사로 가겠습니다

- 모집인원 : 서울 및 광주 캠퍼스 00명
- 응시자격 : 99학번 남·여 재학생
- 모집분야 : 취재·사진·민화 기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통 ② 자기소개서 (지원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중)
- 원서접수 : 3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원서제출처 : 본사 총무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 3월 25일(목) 오후 6시 본사 회의실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부여됨

4차 등록금 협의 성과없이 무산

총학, "답변 무성의하다" ... 학교, "대화도 못했다"

24일 총장 면담에서 윤곽 잡힐 듯

지난 16일 총학생회가 학교측에 제시한 10개 요구안에 대해 학교측이 답변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와 학교 당국의 4차 등록금 협의가 학생처장실에서 열렸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4차 등록금 협의는 학교측의 10개 요구안 답변에 대한 총학생회의 문제제기와 학생처장의 부분적 해명으로 마쳤다.

10개 요구안과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전입금 확충으로 등록금 삭감·병원 등 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수입재원의 다양화를 통해 전출금을 확대하려고 힘쓰고 있으며, 전입금이 거의 전무한 대학들도 있는 실정에서 타대학과 비교해 극히 적은 편은 아님. 또한 법인전입금 50억 학교전입 요구는 재단 산하기관의 종합적 운영을 고

려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대학운영만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분할납부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 △학생경비 20% 확보-학생경비(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포함)는 등록금 대비 17.8%에 해당되며 학교는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할 계획 △적립금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적립금은 적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립금일 경우 이를 활용하여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것이며, 그의 적립금의 경우 목적 외에 사용되기는 곤란한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의결권을 가지는 대학운영위 건설-자세한 내용을 제안해 주면 검토한후 논의하도록

하겠음 등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우리학교의 실질적인 수익사업체는 전자계산원과 수영장이 전부이며 94년도부터 재단은 법정 부담금을 내지않고 있음 △분할납부에 대해 개선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인 △등록금 대비가 아닌 예산대비로 해야하며 의무장학은 배제되어야 함 △실험실습비 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음 △기타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음 등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정수(산림자원학) 학생처장은 "교양외국어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19일 있을 학장·학과장 연석회의에서 각 단과대 표준교과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나현 부총학생회장은 "무성의한 답변에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협의를 마



학자투 선포식후 학생들이 본관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쳤다. 이와 관련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해보고 마치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18일에는 학원자주화 투쟁 선포식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3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도서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호중 총학생회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을 볼 때 등록금을 적립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등록금 적립 중단과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10개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한편, 공과대와 정산대 4백명 학생들은 본관을 순회하며 교육환경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학원자주화 투쟁선포식을 마친 학생들도 본관으로 들어와 10대 요구안을 주장, 송석구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오는 24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새 학생증 24일부터 교부

지난 5일 이전 신청자에 한해

장학과(과장=문옥래)는 지난 5일까지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새 학생증을 교부한다.

교부 일정은 △24일=불교대, 문과대, 사과대, 경상대 △25일=이과대, 법대, 공대, 정산대 △26일=생자대, 사법대, 예술대 △29일=위기간 중 미수령자 순으로 4일간 진행된다.

새 학생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앙당에서 교부하며 신규거래를 신청한 학생들은 도장을 준비해야하고, 기존에 제일은행 통장이

있어 신규 거래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반드시 통장을 지참해야한다.

야간 강좌 학생은 주간 소속대학 교부시 수령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오는 25일 이후 소속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새 학생증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출입문의 비접촉카드기와 바코드리더기 중 선택하여 출입할 수 있고 식당은 교내의 상록원과 제일은행

출장소에 설치된 무인충전기에서 금액을 충전 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및 직불카드의 기능이 있고 버스카드 충전소에서 충전후 버스카드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일 이후 신청한 학생은 4월 초에 새학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급은 장학과에서 즉시 이뤄지며 수수료 5천 원이 부과된다.



대회는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학과 단체팀은 단과대 교학부에, 그의 동아리 단체팀과 4인 1조팀, 교직원팀은 학생과로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는 30회 기념으로 다양한 탐구성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추첨을 통해 30주년 기념 행운상으로 금강산 관광 티켓을 줄 예정이다.

총여·단과대 31일부터 투표

4개 단대·1개 대의원회 후보 미등록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진범·영문4)는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와 단과대 미선거지역 정·부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16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불대, 문과대, 공대, 정산대학생회와 정산대 대의원회는 미등록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다.

단과대 대의원회 선거는 24일부터 2일간, 총여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선거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99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제1지역(학술문화관 1층)=불대, 예대 △제2지역(명진관 1층)=문과대, 이과대 △제3지역(동국관 3층)=법대, 사과대, 경상대 △제4지역(해화관 2층)=생자대 △제5지역(학림관 1층)=사법대 △제6지역(원흥관 4층)=공대, 정산대 △제7지역(동국관 4층)=야간강좌 △제8지역(명진관 1층)=야간강좌(전산통계, 반도체, 영문, 중문)의 8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1지

역부터 6지역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7지역은 오후 2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 8지역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실시된다.

입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미선출 자치단위 학생회장 입후보자

△13대 총여학생회-정임후보자 서신경화(철4), 부임후보자 김이가양(철4)

△15대 이과대 학생회-정임후보 한병준(물리4) △12대 법대 학생회-정임후보 조성흥(법3)

-미선출 단과대 대의원회 의장 입후보자

△15대 이과대 -김기만(화학4) △12대 사과대 -김용태(행정4) △31대 경산대 -김춘배(무역3) △31대 생자대 -김구(식자4) △21대 공과대 -김태하(산공4) △31대 사법대 -최영수(수교4)

4·19 등반대회 신청 접수

금강산 관광 등 상품 다채

4·19혁명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4월 16일 동국인 등산대회가 열린다. 선열들의 참 뜻을 되새기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열리는 등산대회는 70년도부터

한 회도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올해로 30회를 맞는다. 수유리에 위치한 4·19 국립묘지에서 시작해 △진달래꽃 능선 △대동문 △북한산장 △북한산성 매표소를 경유하는 이번

총여 입후보자 인터뷰 "동악 여학생들의 자치권 확보하겠다"

제13대 총여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서신경화(철4), 김이가양(철4) 후보를 만나 출마 동기와 이후 사업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출마동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동악내에서 여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여학생들의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상상력으로 현실의 벽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후보하게 되었다.

-선거 구호의 의미는 무엇인지.

= '새로운 것은 우리안에 있다. 가능성과 대안을 찾는 동악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찍힌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자는 의미이다.

-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비롯해 전반적인 여성운동이 동악내에서는 다소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먼저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내려온 부계 중심 문화에 대한 일종의 거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을 함께 쓰고 여권의 신장을 위한 의미로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동악의 여학생들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과대와 사과대 등에 건설되어 있는 학내여성기구들과 연대해 나가면서 동악내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다.

-98년도 총여학생회의 공백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신경화(우), 김이가양(좌) 후보자가 본사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98년도에는 '여성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1년간의 단절로 인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최대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구체적인 공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동악내 여학생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알아볼 수 있는 '독립공모전'을 비롯하여 △자기개발 워크샵 및 창업, 취업 박람회 개최 △반성폭력 운동 전개 △여학생 자치단위에 대한 예산 확보 △동악 여학생간의 네트워킹 건설 △여성학 생활 도서관의 운영 △여학생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99년도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악의 여학생들과 함께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문제'가 곧 '생존권의 문제'인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함께 공유해서 같이 풀어나갈수 있었으면 한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단기강좌 개설

여학생부처에서는 아래와 같이 강좌를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단, 정원이하의 강좌는 폐강되며, 선착순 마감함)

1. 접수기간 : 99. 3. 22(월) ~ 99. 3. 31(수)
2. 접수장소 : 계산관(사법대 옆건물) 1층 안내책상
3. 대상 및 수강료
 - * 대상 - 동국인 누구나
 - * 수강료 - 5,000원(수강증 교부함)
4. 기타문의는 ☎2260-3056(여학생부처)

단기강좌 안내

강좌명	강사	내용	요일/시간	비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벤트	안석근 (KBS 영상사업단 이벤트 PD) 한국 광고협회(주) 강사	1. 문화이벤트의 추세 기획의 실행과 원리 2. 떠오르는 마케팅 TOOL-이벤트 3.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이벤트마케팅 4. 마케팅실례, 일러스트이벤트	매주 수요일 2:00-4:00	
리본아카데미 만들기 & 장미	장경이 (한국꽃예술가협회 장미꽃재현회 회장)	1. 리본아카데미 만들기 2. 리본아카데미로 장미하기	매주 목요일 3:00-5:00	*준비물 가위, 스테플러, 일회용 칼리더
이미지메이킹	신단주 (한동여대메이킹학과 교수, 신단주 메이크업 아카데미 회장)	1. 얼굴형에 따른 수정메이킹업 2. 호감 가는 화장법 3. 눈썹, 볼, 입술화장 4. 셀프 헤어테크닉 5. 표정관리와 트윈 이미지메이킹	매주 화요일 10:00-12:00	*준비물 개인화장품
스포크라이프	김을선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한·미키아로 스펀 연구소장)	1. 스포크라이프 2. 살기 3. 반박	매주 화요일 3:00-5:00	*편한복장, 면장갑, 선착순40명
댄스 & 댄스	손재원 (동국대 체육교육과 교수)	1. 기본스텝연습 2. 살기 3. 반박	매주 월요일 3:00-5:00	*편한복장, 면장갑, 선착순40명

서울캠 여학생부처장

명사초청특강

1. 일시 : 99. 4. 6(화) 15:00~16:30
2. 장소 : 문화관 예술극장
3. 강사 : 전혜성 박사

- 주요약력
 - 98~99 일본교토대학 국제연구센터 교환교수 역임
 - 79~80, 96~97 일본 오사카대학 민족국제박물관 교환교수 역임
 - 76~85 예일대학 HRAF 연구소장 역임
 - 74~88 예일대학 강의
 - 71~73 Albertrus Magnus College 강의
 - 59~60 보스톤대학 강의
- 국내 출간저서 「엘리트 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도서출판 우석)

서울캠 학생처장

열린장터

열린장터는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필요없는 물건 등을 기증하면 그것을 전신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가는 교환 장소입니다.

- 1) 개장시간은 오전 9:00 - 오후 4:30(토요일, 공휴일 제외)
- 2) 판매방법은 완전 무인판매 (물품에 붙여 있는 가격을 수습함에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 3) 장소는 계산관 앞마당.
- 4)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은 '헌재나, 누구나' 가져와 판매대 옆에 있는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료로 기증하기는 아까운 고가의 물품은 위탁판매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5점이상을 기증하시면 재활용비누를 드립니다.)

서울캠 여학생부처장

경주캠, 등록금 분납 실시...가계부담 줄어든 듯

1차 납부 27일까지·2차 납부 다음달 25일까지

본교는 98년도부터 수차례 제기돼 오던 등록금 분할납부를 99학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도, 분할납부를 실시해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주려 하고 있다.

올 3월초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분할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있은후, 지난 8일부터 경리과(과장=신봉근)에서는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 신청서 및 각서를 접수 받고 있다.

현재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는 경북대학교(국립대의 경우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의 경우 신청과 함께 수업료를 1차로 납부한후 수업일수의 2분의 1시점에 2차로 기성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대, 부산대, 대구대 등이 두번에 나눠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신청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각서를 작성,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등록금 고지서 및 장학증서는 반드시 경리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납액 미납시에는 △99학년도 1학기 등록금인정 양됨 △잔액 미납시 다음달 26일자로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도 있음 △기납부한 등록금 일체 반환이 안됨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분할납부는 1학기 등록금의 반액씩 다음달 26일까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록금 분할 납부 대상자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제외한 재학생 및 재학생이므로 현재 재학생의 등록률(지난 18일기준 85.92%)을 감안해 볼때 1차 분할납부는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1차 납부시 학생회비 및 교지대는 필히 제출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해 경리과의 한 관계자는 "학교나 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신중히 검토한후 내린 결정이므로 분할납부 신청의 미준수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분할납부 신청서

를 낸 학생은 55명이며, 경리과측은 앞으로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98년도에 본지에서 본교 재학생 3백 1명을 대상으로 분할납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7%가 분할납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8년 1학기 군휴학(2백여명)을 포함한 휴학의 경우 8백여명, 올 99년도에는 일반휴학만 7백 29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볼때 IMF시대 등록금 분할납부는 자연스레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정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시작... 지난 18일 백상탈 앞에서 있었던 총학생회 출범식 사진. 상경대를 시작으로 14개의 단대 및 자치기구의 출범식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장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현전무대

전경 <여경>

0...“여경이 전경보다 강하다?” 앞으로 시위현장에는 여경이 배치되어 ‘여경기동대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이는 폭력으로 일컫지는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처럼 부드러운 시위문화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데, 그러나 전경차와 요란한 싸이렌 소리 등 기존의 진압 방식은 별반 달라지지 않으니,

이에 한 시민 월, “집회는요, 여경하기 나름이네요!”

무전 유치

0...지난 19일 경주캠 도서관에서 경찰관 3명이 20대중년의 남자 손에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는 장면이 목격됐다는데,

무순말고도 하니 도서관열람실에서 한 학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외부인이 들어와 휴대용카세트를 훔치려다 적발돼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이에 회전무대자 왈 “왜 경주캠은 학생증을 넣어와 도서관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비 못해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나요?”

자판기 여행기

0...천 음료수의 최후

1.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 넣는다
2. 탄산 전지물을 뽑는다
3. 내용물을 비운다. 시신은 내용물을 삼킨과 동시에 45도 각도로 올려 자판기 위에 고정시킨다. 단 전지물 도난 방지 차원에서 내용물을 반드시 비운다.
4. 다른 전지물과 비교 되도록 예쁘게(?) 올려 놓는다.

최후의 전지가 있던 다음날 전지장은 전쟁터가 되어 결국 걸리버, 일명 청소부 이름마 부대의 빛자루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

폭력교실

0...“동국괴담(?)”

요즈음 몇몇 학교 신입생 환영식에서 신입생들에게 일차려 기합을 취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데, 이는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러나 정작 후배들은 사랑의 감동보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으니, 이에 고통받고 있는 한 신입생 왈, “사랑은 신세대, 표현은 구세대!”

자체적으로 '동국 미술관' 개관

미술학과, "인근 학교에도 대어할 예정"

동국미술관 개관기념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미전 이 오는 30일부터 2주간 원효관내 동국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해 미술학과 사무실에서는 △출품자격=동국대학교 경주캠 퍼스 교수(강사 제외), 대학원생 및 조교 △전시내용=1인 1점(평면·20호기준, 일체 100cm이하) △전시회비=5만원 등으로 전시작품을 오는 29일 12시까지 접수받고 있다.

미술관 개관과 관련해 미술학과 김효연(서양화)교수는 “미술관 개관을 계기 바서는 본교 작품전 및 경주지역 인근 학교에 전시장소로

대어할 예정이며, 넓게는 서비스 차원의 지역화원으로 불수 있다”고 그 취지를 말했다.

한편, 미술학과에서는 동국미술관 개관을 위해 지난 방중부터 교수·학생·조교가 3위일체가 돼 벽도배, 실내디자인, 조형에 이르기까지 미술학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직접 해왔다. 대학내 미술학과 대다수가 학내 미술관이 있는 실지 때 있는 것을 볼때, 예산·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적절한 전시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처럼 학과 차원에서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전과, 36명 합격

조기졸업 신청자 24명

학적팀(팀장=임상록)이 99학년도 전(부)과 합격자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총 36명 신청에 36명이 전과 허가를 받았다.

한편 재입학 등록과 조기졸업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재입학 등록의 경우 총 24명 가운데 14명이 등록 허가를 받았다. 조기 졸업은 총 24명이 신청했다.

총대, 24일까지

단과대 대의원 등록 마감

총대의원회(의장=이상해·회계4 이하 총대)는 지난 16일 대의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의 1백 76명 가운데 1백 26명이 등록해 전체 72%의 등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단체별 현황(괄호는 총원)을 보면 △인문대(44명)=26명 △불문대(16명)=12명 △자연대(39명)=27명 △법정대(12명)=12명 △상경대(26명)=19명 △한의대(7명)=5명 △의대(9명)=9명 △야충(22명)=16명 등이다.

이에 따라 총대는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등록을 해 오는 24일까지 단과대 대의원 후보자를 등록받으며, 지원자격은 4학기 초과 등록한 학생에 한 한다.

고문서·유품

본교에 4천점 기증

이상결(전 경주항교 전교) 선생의 고문서 및 덕봉 이진택 선생의 유품이 지난해 7월 1차 기증에 이어 2차로 본교 도서관(관장=이갑록·화학)에 기증됐다.

이번에 기증된 문서는 지난해 7월 고서 1천 10책과 덕봉 선생 문집 판권 95매에 이어 고문서 3천 8백 95매와 덕봉 이진택 선생의 유품 25점 등이다.

문서와 유품은 △경주의 화사사·소사화사 연구·소도·선시대·복식과 생활사 등이 다.

기증된 문서 및 유품과 관련해 이갑록 도서관장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귀중한 문서와 유품을 본교에 기증해 추진할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본교에서는 이상결 선생의 문고로 개별 보관, 후학들이 학문연구에 많은 도움되도록 보관에 주의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게실 사물함 사용

총여에서 31일까지 신청접수

총여학생회(회장=진선희·국문4 이하 총여)에서는 오는 31일까지 학생회관 3층에 마련된 휴게실의 사물함 사용 신청을 접수받는다. 사물함 신청은 선착순에 따르며, 그동안 1년이란 대여기간이 잘 지

켜지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규정대로 한다는 것이 총여의 입장이다. 총여 회장은 “아직 학교생활에 익숙치 않은 신입생들에게도 홍보가 되는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사물함 사용에 대해 덧붙였다.

31일, 취업상담·적성검사 무료 시행

취업과(과장=채찬호)는 오는 31

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원효관 중층에서 취업 및 아르바이트 상담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함지방 노동사무소 주최이며, 4명의 노동부 직원이 참석할 이번 행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취업 및 자격정보 제공 △취업상담 및 구직표 접수(아르바

이트 포함) △인력은행 및 만남의 날 행사 안내 등이다.

한편, 취업과는 직업선호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백50명을 취업과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검사일시는 오는 31일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원효관 A207종합강의실에서 치러진다.

지역홍보 판산연이 나선다

관광산업연구소(소장=서태양·관광경영학 이하 판산연)는 지난 17일부터 경주 문화엑스포 현장에서 열리는 '술과 떡 축제' 행사에 경주시 요청으로 통역 가이드 6명, 자원 봉사자 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와 관련해 판산연 측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으며 “문화 엑스포 이후 두번째로 통역가이드를 보냄으로써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행사 참여의 의미를 부여했다.

출준위, 24일 출범식

출업준위위원회(위원장=이시영·법학4 이하 출준위)는 오는 24일 학생회관 3층 옥야실에서 정기총회및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의 식순은 △집행부소개 △출업준비위원회 소개 △안전검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는 △99학년도 사업 전개방향 △앨범제작-앨범계약방법, 전년도 학교별 앨범비 비교표 △공약사업 추진 계획서 검토 등이며, 특히 앨범제작과 관련해 전년도 학교별 앨범비 비교표 및 졸업비백정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본다.

99학년도 제학기 수강과목 취소(W) 시행

99학년도 제 1학기 수강과목 취소(W)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수강신청 교과목중 취소할 교과목이 있을시에는 다음 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신청기간 : 99. 3. 24(수) ~ 3. 25(목)
- 2. 신청장소 : 각 대학 교학과
- 3. 적용대상 : 99-1학기에 개설된 전 교과목 수강신청자
- 4. 대상교과목 : 전 개설교과목
- 5. 취소과목 표기 : 성적기록표상에 "W"로 표기
- 6. 유의사항 :
 - 가. 수강과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강을 포기하면 성적기록표에 "F"로 등재되니 유의하기 바람.
 - 나. 수강신청을 취소한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취소 가능함.
 - 다. 장학금 선발 기준은 신청학점이 아닌 취득학점이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바람.

교무처장

「컴퓨터 활용...」 평가기준 공지

본 컴퓨터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인 컴퓨터 활용과 실습1 강좌의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평가방법
 - 1) 이론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 수업진도표에 따라 교육원에서 공통시험 문제 출제
 -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주간, 야간 분리 실시
 - 성적산출은 전체 분포를 참조하여 각 Section별 분포결정
 - 2) 타자검정
 - 컴퓨터 활용과 실습1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강사의 제량에 따라 수시로 타자검정을 평가하여 1학기에 한글타자검정(HIT)이 200타, 2학기에 한글타자검정이 250타를 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F학점. 단, 1학기에 워드프로세서 1급/2급, 2학기에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검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시험면제.
 - 3) Chatting(챗팅) 발라 시에는 이유불문하고 F학점.
2. 워드프로세서 검정의 의무화
 - 컴퓨터 활용과 실습1을 수강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검정을 의무화 합니다. 워드프로세서 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실습 점수에서 10점 감점이 적용됩니다.(1학기 -2급이상, 2학기 -1급이상)

컴퓨터 교육원 안내전화 및 자유실습실 개방안내

가. 안내전화 : 0661-770-2487
나. 야간개방시간 : 오후5시~당일 오후 9시
다. 개방기간 : 3월 8일 ~ 6월 18일
라. 개방장소 : 실습실A실(도서관 3층)
참고사항 : 수업이 없는 모든 실습실은 자유실습이 가능함.

경주캠 컴퓨터 교육원장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 가. 99년도 4년제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 나. 1975. 3. 1 ~ 81. 2. 28 사이에 출생한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99. 3. 8 ~ 4. 24(학군단 행정실)
 - 나. 구비서류

지원서 제출 시	체력검정(필수)·신체검사(필수)
• 지원서(학군과 소정양식)	1부
• 수능성적/대학성적 증명서	각 1부
•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매출세 제때 제공)	각 2부
• 국가유공자, 군 장기군속자 지체 확인서(해당자)	• 개인정보, 수험표, 신분증
• 특기사항/취미사항 증명서 사본(해당자)	• 경쟁력 발휘 지침
• 한안색 사진(4x5cm 말로 상반신)	4매
• 병적증명서	1부
4. 선발절차 및 배점
 - 가. 서류전형(수능성적 30%, 대학성적 2%), 체력검정 30%, 면접 평가 2%
 - 나.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회(합격, 불합격)
5. 특전
 - 가. 장교신분으로 최단기 국방의무 수행
 - 나. 국비에 의거 국내·외 석·박사 학위취득 가능(장기지원자)
 - 다. 병과분류시 전공과목에 따라 16개 병과 분류
 - 라.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 마. 대기업 학군출신 장교 우대선발 및 채용
 - * 문의처 : 동국대 (경주)학군단 (TEL. 770-2637)

99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 00명, 2학년 00명
2. 지원자격 :

4년제(1학년)	3년제(2학년)
• 77. 10. 1 ~ 88. 10. 1 출생자	• 대학 1학년 성적이 매학기 C학점 이상 자
• 76. 10. 1 ~ 82. 10. 1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99. 3. 2 ~ 3. 31(학군단 행정실)
 - 나. 구비서류

지 원 서	신 체 검 사 시
• 지원서(사전첨부) 및 서약서	1부
• 대학 수능고사 성적 증명서	1부
• 대학 성적 증명서	1부
• 복무연장 지원서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2부
•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면접평가 관련서류	각 1부
• 병적증명서	각 1부
4. 선발절차 및 배점
 - 가. 1차 : 서류전형(수능 30%(1학년 50%) 대학성적), 면접평가 20%, 체력검정 30%
 - 나. 2차 : 신체검사, 신원조회, 인성검사(합격, 불합격)
5. 합격자 발표 : 99. 8. 12
6. 특전
 - 가.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나.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다.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 라. 대학 2학년초 학군사관 지원서 우대(가산점 부여)

제 112 학군단 경주분단장

동약로



노점상

종로5가 뒷골목의 2차선 도로변 한적한 길가에 한 아저씨가 리어카를 세워놓고 떡볶이며 어묵, 튀김 등을 팔고 있다. 우선 떡볶이 2천원어치 포장을 주문하고 "아저씨 어저께까지 이곳에 없었던 것 같은데..."라고 질문을 던진다.

"어저께까지 저기 위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주민의 신고로 쫓겨났어요. 그렇다고 딱히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없고, 애 엄마도 없이 애 들을 키우는데..." IMF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해 이런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이 부쩍 늘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변에 나온 이들.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생계수단 유지는 이처럼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비록 정부에서 공여지책으로 이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단속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소위 자리세란 것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도 그리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외에도 대자본에 의해 영세자 본인 노점상들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동대문에 들어선 두산타워는 그곳에서 이전부터 장사를 하던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노점상들의 요구는 장사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산타워측은 보상금을 줄 테니 물러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랑이 끝에 지난 2월 24일에는 두산타워 용역직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한 노점상인은 "당시 그들은 60이 다된 아주머니에게 집종구타를 가하기도 했다"며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리의 노점상들. 실업자가 2백만 명에 이르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더 물러날 곳은 과연 어느 곳인가.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전여대협 첫 공식집회

주한미군 철수등 주장 ... 지속적 투쟁 결의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는 지난 19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오부처 게이조 방향 반대, 사대매국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의 마무리집회 모습이다.

대경(대구, 경북)여대협과 전남여대협, 충청여대협 그리고 서울여대협에서 총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진 이번 집회는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선전전을 통해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으며, 현 사회를 일제시대에 이은 미국에 의한 제2식민지로 규정하고, 미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본집회후 전여대협은 △반여성 정권 사대매국정권 김대중 정권 퇴진 △주한 미군 철수 시켜 민족자주 쟁취하고 전쟁책 등 분쇄하자 △3·19 총궐기 성사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전여대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가졌다.

결성후 처음으로 집회를 치른 전여대협

은 "이번 총궐기를 통해서 여학생들의 집단적, 전국적 힘을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회는 경기대 총여학생회장 최선영씨가 제5기 전여대협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 전여대협측은 4·2 한총련 총궐기와 4·3민중대회, 곧 있을 전여대협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 대해 건국대 총여학생회장 이현정씨는 "정신대 배상문제와 같은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여학생들도 주체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충분하며 삶의 보장을 약속받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가져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살기위해... 두산타워가 들어서면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40여명의 노점상인들은 갈 곳을 잃었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복차림으로 생존권보장을 위한 집회를 치루고 있으며, 1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농협중앙회 회장 면담시도 무력충돌 ... 50여명 연행

지난 18일 오후 2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전국농민조합원대회'를 열었다.

협동조합 개혁안을 놓고 농협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농민들의 마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 50여 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농민들은 계속 투쟁을 전개하며 줄서서 처리한 협동 노동조합 개혁안을 철회하고 △농민대회의 무력진압 사과와 연행자 석방 △전농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천리마 징역8월·집유1년 선고

서울 고등법원은 경기남부총련 산하 '천리마노래단'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찬양·고무죄단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운동서클에 이적 활동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어느 단계이건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하려면 그 단체의 활동 목적이 이적활동이라는 점과 내부적으로 상하관계를 규율하는 조직지휘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 동시에 입증되어야 한다"며 "천리마의 경우 노래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부합되나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계훈제 선생 영결식

18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재야의 원로인 고 계훈제 선생의 영결식이 지난 18일 10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다. 식후 12시경에 장지인 모란공원으로 장례 행렬이 이어졌다.

항상 점퍼차림의 간소한 모습을 유지했던 고 계훈제 선생은 문익환, 백기환 선생과 함께 문계백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으며 84년 민주통일국민회의 부의장, 85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의장,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조국의 자주민족통일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획-내각제 시리즈 3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결정 안돼

공론화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해야

- 1. 내각제의 특성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각제
2. 현 시기에서 내각제는 적합한가
3. 당면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최근 국민회의 기초위원장이 내각제 개헌을 연기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해임되었다. 자민련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김종필 총리와 어느 정도 이질점 심 통하는 바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2-3개월 뒤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제를 둘러싸고 물밑에서 치열한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다.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내년 총선 전이나 현 대통령 임기 말이나? 단지 양자택일의 차원에 초점을 두고서 전해지는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쾌함을 누를 수 없다. 그것은 우선 한 나라의 정치체도가 과연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약속이나 담판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둘째로 과연 이 문제가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구조 개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사안이 될만한 것인가. 셋째로 정권교체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보도되는 이 문제에 관해 과연 신문과 방송은 공론영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문의 정치면에서 그토록 중요한 기사거리이건만 아직껏 이 문제에 대해 칼럼다운 칼럼이 없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는 대통령제의 단점인 권력집중을 견제할 수 있다. 의회를 중심으로 공론이 활성화되어 정치적 판단이 합리적일 수 있다. 내각제 하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독식을 극복할 수 있다 등이다. 반면에 내각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내각제는 자본과 권력의 결합으로 정경유착이 심화되며 보수 수구세력의 연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연합으로 오히려 지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등이다.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양쪽의 말이 다 맞다. 요컨대 우리 현실에 맞는 이론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사회의 선거란 건전한 계급의식에 바탕을 둔 투표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투표행태는 지역감정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유권자가 부자를 위한 정책에 표를 던지는 모순이 반복되었다. 반민족적 친일과 반민주적 독재에 뿌리를 둔 반통일적 수구세력이 늘 기득권을 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지역감정 때문이었다. 지역감정이 우리를 '투표 폭두각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역감정은 우리의 사회적 갈등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개혁을 가로막았다. 의사이념 내지는 준이념이 되어버린 지역감정이 투표행태를 보수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정책대결이나 정당의 이념화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역감정의 극복은 정당의 이념화나 이념정당의 성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정부 역시 지역감정의 산물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패권적 지역주의(영남)에 대한 저항적 지역주의(호남)의 승리가 우리의 계급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깰그리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라는 것들을 보자. 대북 햇볕정책을 제외한다면 과거 정부의 그것들과 다를 것이 있는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참다운 개혁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민련과의 지역연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 정부에게서 도대체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자민련이 떨어져 나가면 정권이 위태롭다고? 한나라당이 기득권 상실을 견디지 못하고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고? 개혁다운 개혁을 통해 대치선을 지역대립에서 계층대립으로 옮겨야 한다. 최후의 정치적 결정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각제를 반대하는 보다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아니 그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도구라는 데에 있다. 무엇보다도 내각제 논의에 흥분하는 것은 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정권연장을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약속이라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을 불모로 한 상충부거리의 연합일 따름이다. 그것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별로 없음을 시사한다. 권력집중이 문제가 된다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법은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분권적 요소의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데에 있다. 선진국에는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많다고?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내각제는 일본식의 정치로 나아가지는 말라. 금권이 지배하는 정치를 통해 건전한 정치체력의 임무를 막겠다는 저의 때문이다. 지역주의를 고착화 시키지는 의도에 불과하다.

여당공조에 금이 갈 새라 내각제 신경점으로 말미암아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뒤로 밀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에, 아니 지금 당장 내각제에 대해 국민적 공론을 전개해야 한다. 내각제를 토론하자.

강치원 강원대 사회과 교수

개혁과 발전의 걸림돌 '지역주의' 논단

정치권·언론 각성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돼야

우리 정치를 움직여 나가는 여러 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망국적 고질병인 지역감정이다. 어느 나라에나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지역감정은 다른 나라와 달리 민족 통합과 국가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역감정은 일종의 허위 의식이다. 애당초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있다면 향토의식이나 애향심 같은 것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거나, 자라나거나,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토애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극단적인 지역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문제의 뿌리이다.

한국정치와 지역감정

지역감정은 특히 정치에서 두드러진다.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아주 사소한 정치 사안에서도 지역감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감정을 틀쭈셔서 재미를 보는 정치인이 있기 때문

이다. 지역감정은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격차와 맞물려 형성되었다. 즉 지역감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소외와 차별의 결과인 것이다. 정치적 갈등 구조가 계급이나 다른 요소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지역주의이다.

그 뒤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이 지역감정을 통치기제의 하나로 삼으면서 지역감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에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태어나면서 지역감정은 극도로 약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감정은 아주 자연스런 정치적 결정요소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지역감정이 한국 정치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정치적 변수가 되자, 지역감정 자극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정치 현안에서 각 정당들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도 지역감정이다. 정당이 이념과 노선,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이기 때문이다. 정당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 진보 대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다.

지역감정의 현황과 폐해

지역감정은 공격적 지역감정과 방어적 지역감정으로 나뉜다. 공격적 지역감정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발한 지역감정이다. 그리고 경제성장과정에서의 후대접에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공격적 지역감정에 대한 분능적 방어로 나타난 것이 바로 방어적 지역감정이다.

처음에는 공격적 지역감정이 문제였으나 요즘엔 방어적 지역감정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세력이 생겨나 그 이익을 철저히 챙기고 나아가 부추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감정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 오히려 지역감정의 피해자가 되었고 정치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역감정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다. 정치권은 말로는 지역감정 극복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감정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역주의 해소 방안

IMF 체제가 되어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정치권은 이것도 지역감정에 호소함으로써 국민을 더 깊은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되는 박달 등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감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갈래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이에 기대어 지역감정을 확산시키는 언론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영호남의 인적 교류만으로 지역감정의 꼴이 하루 아침에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언론의 각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새로운 환경속에서 민간 차원의 인적교류를 비롯한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의 변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설

권노갑 신임총동창회장에게 바란다

총동창회 20대 신임회장으로 권노갑 동문이 취임했다. 지난 19일 열린 20차 정기총회에서 93년부터 3대에 걸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황명수 동문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국민회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그가 동창회장으로 추대됨으로써 동국발전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동국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작년 총장선출과 관련, 생겨났던 구성원간의 이견들이 아직 완전히 합쳐지지 못했고, 나아가 학내주체들과 학교 당국간의 신뢰관계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바깥에서 동국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창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된다. 동문들이 발벗고 나서서 끌어주고 밀어주어 동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국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동국인들의 바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권노갑 동문의 총동창회장취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년전 한보사태에 연루되어 일본으로 떠났던 그가 지난 2월25일 국민회의 고문으로 임명되는 등 한창 정치활동체계를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맥락에서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바라는 것은 권동문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것이다. 권동문이 지난 19일 취임사를 통해 16만 동국인 앞에서 밝혔듯 총동창회와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 하겠다는 다짐이 제발 실천되기를 바란다.

16만 동국인이 하나되어 동국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 동국의 미래가 보다 밝아질 것이며, 그러한 과업을 이뤄내는데 총동창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자추 건립 1년을 돌아보며

이미 경주캠퍼스에서는 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지분결정이 이뤄졌으나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는 자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정된 회칙에 의거 총학지분의 2%에서 더 이상한 지분을 총학에 요구하고 있어 양기구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팽배한 상태이다. 지난해 학자추가 건립된 근본 취지는 학자추의 학자사업이 자치기구로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납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총학선거를 치르면서 계열이나 사상이 다른 총학이 들어설 경우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계성이 보장되지 못하게 사실이다. 실제로 계열이 다른 총학이나 학생회가 들어서면 이전에 추진해왔던 관련자료와 문헌들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못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그러한 폐단이 또한 번 드러난 것이 이번의 지분을 둘러싼 양기구간의 마찰이라할 수 있다.

지난해 학자추 분리는 중운위에서 논의된 후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으나, 중운위가 있는 다음날 각 단대 및 자치기구의 장으로부터 서명만을 받은 채 정기총회에 통과돼 자치기구로 승격됐다. 이는 중운위에서도 신중함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정기총회를 염두해 두고 행해진 졸속결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단은 회칙의 불명확성에 있다. 학자추가 자치기구로 승격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중운위에서는 중운위위원회 학자추위원장 직책이 빠져 있어 학자추위원장을 중운위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또한 자치기구가 학생회비의 지분을 받지 않고 총학지분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회칙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런 학생회칙에 대해 우성기(법학과)교수는 "학생회칙은 신중하게 제정된 것 같지 않다"는 말로 회칙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불명확한 회칙을 기반으로한 신중히 검토되지 못한 학자추 건립문제는 반드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몇일 후 열릴 정기총회에서 학자추 존폐와 더불어 대내적인 회칙개정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신문, 개혁이 필요하다

참된 국민의 신문으로 거듭나길

창간정신 되새겨 정론직필 주력해야

국민의 신문이라 자처하던 한겨레신문에 대해 독자주주모임과 재야단체를 중심으로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는 87년 6월항쟁 뒤 참다운 민족 정론지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기존 언론사의 해직기자들을 중심으로 6만여 국민주주의 힘으로 88년 5월15일에 창간된 신문이다.

하지만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던 김영삼 정권 때부터 서서히 기성언론들과의 차별성을 잃어가더니,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는 아예 정권의 품으로 안겨 여당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범민련을 비롯한 진보, 민중세력들에 대해 기존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편파·축소·허위 보도를 계속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분개하여 한총련에서는 "민주신문이라 자처하는 한겨레신문이 민주적 보도를 중단하고 애국하는 민중의 투쟁보다는 상업성이 농후한 기사로 신문을 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덮어버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98년 5월에는 산하 전학생회에 한겨레신문 구독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

리기도 했다.

또한 경영실책으로 인해 자금난도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 지난 1월13일자 한겨레 노보는 "한겨레신문이 자매지 한겨레리빙의 심각한 적자로 인해 39억여원의 투자자본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자주주모임은 한겨레신문의 부채비율이 조선훈보를 능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한겨레신문이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주주들이 모아낸 독립자본금에 있었으며, 일간지의 특성상 수입의 90%이상이 광고수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겨레신문 역시 자본의 논리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신명순 독자주주모임 상임대표는 "독자주주모임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파벌 경영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한겨레리빙 문제 등의 경영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래야 새 경영진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한다. 즉, 한겨레신문의 경영에 독자주주들이 참여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국민의 신문으로 거듭나야 한



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한겨레신문 파행의 큰 원인이 내분으로 인한 파벌경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민주를 지향하며 민족을 대변하는 민중의 언론이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 민중, 민족언론을 표방하며 창간된 한겨레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겨레신문은 98년 5월15일에 창간 10주년을 맞아 '창간 10돌과 새로운 10년'이라는 사실에서 "2천8년 5월15일에 '나라가 이렇게 민주화하고 겨레가 통일된 데는

한겨레의 공이 적지 않았다"는 평을 받는다면 더할 영광이 있겠는가"라고 밝히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목표이자 또한, 국민들의 바램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정 공을 쌓으려면 한겨레신문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의 98%를 갖고 있는 6만 독자주주들과 함께해야 하고 또, 창간정신이 민주·민중·민중언론이라는 점 그리고 언론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할 정론직필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부주 김삼익	편집장 박상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편집장 김미경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61)770-2057
		팩스 (0561)770-2058



배외용 교수 가 권하는 책

말과 사물

현대사회에서 위기에 처한 인문과학이 존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푸코는 이 책에서 한 사회가 세계속의 사물들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방식이 각 시대마다 다른 개념을 속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이런 개념들에 관한 연구에 인문과학의 존립 근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음사, 정가 9천원

기호의 제국

프랑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기호학자가 글쓰기의 나라 일본에서 혼외정사(?)를 즐기는 책이다. 서구의 기호학과

일본의 기호학자가 만나면 글쓰기가 선의 깨달음으로 승화되면서 동서문화의 멋드러진 상호작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일본문화의 개방에 즈음하여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민음사, 정가 만원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현대인의 삶은 사이버스페이스에 의하여 무한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 가상현실의 공간은 전통적인 철학이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가상현실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이데거와 맥투한의 가상적 대화를 통해 알아보자. 책세상, 정가 1만원



중국의 3M사상과 서구의 반3M사상

중국을 처음 여행하는 사람이 한 주일만 돌아다니고 나면 귀에 남는 말이 세가지가 있다. 메이요우(없다)와 메이관시(관계가 없다 또는 문제가 없다)와 밍티엔(내일)이란 세 낱말이 그것이다. 이 세 단어는 중국인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즐겨 쓰는 말이다. 기자역에 가서 기차표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개는 먼저 메이요우로 답을 한다. 그리고 부탁했던 일을 확인하려 들면 대개는 메이관시로 답을 한다. 또 어떤 요청 사항에 대한 즉답을 듣고 싶어서 아무리 독촉을 해도 그 대답은 항상 밍티엔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차표를 아주 못 사는 일도 없으며, 부탁했던 일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대한 답을 못 듣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으며, 관계나 문제가 있는 것도 없고 관계나 문제가 없는 것도 있으며, 오늘이 곧 내일이고 내일이 곧 오늘이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중국 역사의 특수성에서 체질화된 의식인

것 같으며, 중국의 현실적 상황 인식에서 형성된 국민의식으로 여겨진다. 중국인들처럼 관계를 중시하는 국민은 전 세계의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메이관시란 말을 즐겨 쓴다. 관계는 있다가도 없으며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가 없어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재물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물과 관계되는 일까지도 그들이 밍티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으며, 만만디(천천히)와 빠르게가 모두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다. 서구를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을 수 있는 낱말은 매니매니(많이많이)란 말이다. 메이요우가 아니고 매니매니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하며 토론하기를 즐겨한다. 메이관시가 아니라 매니매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메이관시가 아니라 인간은 매니매니 관계 속에서만 존

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밍티엔과 오늘은 매니매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의 오늘이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매니매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컴퓨터와 인스턴트 식품도 만들어내고, 시간은 황금이라는 속담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도화원기에 나타난 도연명의 이상향은 물질을 긍정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물질을 부정하면서 정신적 건강을 지향한다. 물질이 부족하면 행복은 물질에 있으나,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은 정신적 건강에 있는 것이다. 취직이 안되면 행복이 취직에 있을 것 같지만, 취직이 되고나면 행복은 여유로운 삶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은 오히려 그런 각기 다른 상황논리의 틀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이 공존한다는데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임기중 문과대 국문학부 교수

탈수습기 곧은 빛 움켜쥐고 다시 서라! 그대 정기기자여!



“열린 신문 위해 큰 그릇 되겠다”

어떤 선배는 신문사를 강물에 비유했다. 강물의 표면은 잔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소용돌이와 같이 흐르는 물의 힘은 그 무엇보다 거대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이 바로 신문사를 이끄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비록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신문사의 한 걸음이 나의 열 걸음보다 크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 거대한 한걸음의 움직임에 의해 나의 걸음은 수없이 늘어나야 하는 것을 인식하기에 더욱 기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진다. 98년 3월, 대학이라는 곳에서 던져준 자유에 취해 방종으로 치달기 시작할 무렵,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특히 내 목소리를 담아낼 곳,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교내에 붙어있는 대자보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 눈에 들어온 수습기자 모집광고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 신문사에 들어왔을 무렵, 그 어떤 일이라도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있었다.

펜 하나와 종이만 있으면 어떤 기사든 막힘없이 써내려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떤 험난한 곳이라도 취재를 위해선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원고지 1.2매의 글을 쓰기 위해 하루밤을 꼬박 새워야 했고, 취재회의, 편집회의의 때마다 걸려오는 친구들의 전화에 하루에도 수십번의 방황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탈수습을 하고 있다. 신문에 대한 아무런 고민없이 보낸 시간동안 내 손에 쥐어진 얼마지 않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때마다 지면에 숨김없이 나타나는 한 없이 부족해 보이는 기사를 바라보면서 쓸쓸함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런 신문에 대한 애착을 마음 속에 새기며 이제 정말 진정한 '정' 기자가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수습이 아닌 정기자로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 열린 신문, 깨어있는 신문을 위하는 길은 기자의 열린 생각과 대중의 호응으로 이뤄나가는 것이기에 내가 먼저 가슴을 활짝 열어놓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동약의 모든 이를 대변하는 기자로”

주사위를 던져 보자. 육면체의 이 물체는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뽀이다. 난 단지 주사위를 던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훈련만 열심히 되풀이 할 뿐이었다.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있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주사위를 깨뜨리자. 왜 내가 이것을 던져야 하지? 심각하게 묻자. 상상도 못할 자유가 흘러 넘치는 대학에서 나 또한 길을 잃었다. 그래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한 지도로써 선택한 곳은 신문사였다. 그동안 간혀있던 주사위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서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학교, 친구, 규칙, 공부... 어느덧 6개월이 지난 후 내게는 다양한 선택의 길이 보였고, 예전의 닫혀있던 것과는 달리 스스로 노력하고, 그 방법은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느끼게 해준 신문사의 모든 것이 '애정'이란 이름으로 다가온다. 기사마감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동기들, 선배들이 있었다. 그들이 있기에 신문사에 있는 이유가 성립되었으며, 더 나아가 나를 지켜보는 무수한 독자들이 있기에 신문을 만드는 힘이 생겼다.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또한 이제는 값진 경험으로 남는다. 때론 시위하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이들에게선 숙연함때문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한다. 주사위는 깨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주사위'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실수가 용납되면 시절과는 달리 '책임'이란 이름아래 신문의 공간 하나하나를 채워나가야 한다. 혹여 약해질때마다 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넌 너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겨내려고. 외친다. 부끄러움과 두려움보다는 활일을 찾았다는 기쁨에서 기자라는 이름으로, 감히 동약에서 숨쉬는 모든이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송재훈 기자 jaehun79@cakra.dongguk.ac.kr



“열정을 담보로 싸움은 시작됐다”

어느 날 우연히 서로 다른 일간지의 특기사를 목격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내가 그날은 유심히 비교해가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난다. 솔직히 그 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어떤 말보다 많이 들었던 '현상과 본질'. 그날 기자로서 처음으로 본질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현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자는 그 현상보다는 내면에 포함된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었으나 나에게 위대한 발견과 같았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수습기자생활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생활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항상 남들보다 두배로 뛰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6개월의 수습과정을 밟기에 바빴었다. 한 때 대학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만끽하며 삶의 여유를 부릴 즈음 신문사라는 낯선 공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많은 변화를 맞이해야 했고, 그 속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수습초기의 생활

을 시작해야 했다. 가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고 신문사 내에서의 내 공간 확보에 남다른 신경도 많이 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소속감이랄걸 알았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 버렸다. 그 후 신문에 대한 애착을 갖기도 전에 나는 강가에 홀로 버려진 아이처럼 불안한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다. 물에 빠지면 혼자 그곳을 빠져나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줄 알아야 했고, 물밖으로 나왔을 때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려 입어야 하는 자립심과 위험수위를 파악하고 같은 실수의 반복을 피할 줄 아는 지혜로움도 가져야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했다. 신문사는 가끔 나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으나, 손을 내밀지 않는다. 나 역시 신문사에 손을 뻗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 기자로서 발견한 본질은 이렇게 얻었다. 아무도 나에게 본질을 바라보라고 신문을 가져다 놓지 않았다.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정기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 같다. 이제부터 나의 열정을 무기로 한 싸움은 시작된다. 두려움은 없다. 김미영 기자

매체비평

- '애니메이션'

“재능과 창의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첨단산업의 미래는 없다. 정말로 시급한 것은 애니메이션계의 구조조정이다.”



애니메이션은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키우기만 하면 쑥쑥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는다.

지금 온 나라는 애니메이션의 황당한 열기에 들떠 있다. 수십년동안 일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의 그 날을 기다려온 우리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환영해

를 개설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학구열이다. “내년부터는 나도 프리랜서야!” 이 학원 광고의 카피가 이 열기의 실체

가 아니기를 빈다. 학과를 개설하고 지갑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따져봐야 한다. 왜 지구촌 수백의 국가들 중에 유독 일본만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파고보고 따져봐야 한다. 애니메이션은 결코 만만한 사업이 아니다. 키우기만 하면 쑥쑥 황금알을 낳아주지 않는다. 디즈니도 ‘포카혼타스’ 한 편의 흥행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렸을 만큼 위험한 사업이다. 또한 십년 전에 선구자로 출몰한 공주 전문대의 만화영화학과 졸업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성공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선봉에 서 있는지 학과 개설에 앞서 조사해야 한다. 수많은 학부전공자들이 실무에 뛰어들었다가 좌절하고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애니메이션이 한 사람의 키우는 일은 파일롯 한 사람 키우는

일보다 어렵다고 한다. 애니메이션은 같은 하청일이라도 봉제공과는 전혀 다르다. 정상적인 미술전공자들도 기초적인 일부터 새롭게 배워야 하고, 그 세월이 졸업이 십년은 걸린다. 그것도 소위 목숨건 경우의 이야기이다. 지극히 생존률이 낮은 직업이다. “내년부터는 프리랜서야!” 이견 있어야 한다. “자유로운 고소득 직업” 이것도 있어야 한다. 원화맨이 되어도 월수입 2백만원도 흔치 않다. 보통 월수입 십만원 미만으로 출발된다. 그나마 일이 없으면 속수무책의 실업자가 된다. 재능과 창의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첨단산업의 미래는 없다. 접근대적인 도급이 남아있는 곳이 이 곳이다. 정말로 시급한 것은 애니메이션계의 구조조정이다. 작은 기업에서는 가능성을 믿고 장기투자를 할

수 없다. 재벌기업에서 나서서 기다려 주어야 한다. 인재를 우대하는 산업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문호를 개방해서 전문가들을 끌어 들여야 한다. 일본만화영화의 그 치밀한 메카닉이나 설득력있는 심리묘사, 박력있는 화면구성은 전문적인 식견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모를 통해서, 공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 우리는 영상문화에 둘러싸여 자라난 이 젊은이들 속엔 황금알이 아니고 금강석도 품고 있는 인재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젊은 인재들과 기존의 숙련된 인력들이 힘을 합친다면 분명 우리는 제3의 애니메이션 강국이 될 수 있다. 함옥기 새롭프로덕션 원화가

패러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설립목적은 한마디로 페인 만들기이다. 공부를 잘했던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만 오면 많은 어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여 교육목표를 페인 만들기로 잡아 아예 어른들이 기대한 것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모든 분야에 걸쳐서 페인을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최악의 역할을 담당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지타가 인정하는 민족의 대확으로 자리 잡았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교육목표란 말인가. ‘페인 만들기’라니... 비싼 등록금을 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발대발할 노릇이다. 그러나 아들, 딸이 인터넷에 무지하다면 이런 노발대발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학은 인터넷상에서 <http://hugsvr.kaist.ac.kr/~overclas/>의 주소를 쓰고 엔터를 쳐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구라대학교’. 이름도 괴상한 이 기상천외한 대학은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그야말로 가상(?)대학이다.

”

패러디, 대항문화로 자리잡다

지난해 사회·문화 전반을 휩쓴 최대의 화두는 ‘패러디(parody)’였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냉소적인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자기 목소리를 여과없이 담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패러디는 하나의 ‘대항문화’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문화나 사회를 흉내내며, 이에 대해

‘삐딱한’ 시선을 갖고 접근하는 패러디는 문학, 영화, 방송, 광고, 인터넷 등 대상과 장르를 가리지 않고 봄을 이루고 있다.

타이타니, 도망자, 브레이브 하트 등 헐리우드 대작 24편을 패러디한 영화 ‘뽕폴리 어류즈드’, 월간 조선 조갑제 국장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패러디한 문화평론가 진중권의 화제의 책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영화 고질라를 패러디한 ‘마티즈’ 광고, 비록 제목만 패러디했을지언정 비디오도 미누라 죽이기를 패러디한 ‘미누라 때리기’, 처녀들의 저녁식사를 패러디한 ‘과부들의 저녁식사’ 등 이 시대의 패러디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는 검열의 잣대에서 자유롭고 1인 운영이 가능한데다 전파력이 강해 패러디 신드롬의 주무대가 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패러디 사이트는 봄을 이루기 시작했다. 지난해 ‘딴지일보’를 필두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패러디 사이트는 ‘정보의 바다’에 넘쳐났다. 인터넷 패러디의 최대 강점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패러디붐이 일어난 원인은 다양하다. 앞서 밝혔듯 국제통화기금시대의 ‘썰렁한’ 분위기를 ‘쓸쓸한 웃음’으로서 극복하기 위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는 상상력의 고갈로 인해,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비주얼세대인 신세대의 취향에 맞기 때문 등이다. 이러한 원인과 더불어 현재 흥수를 일으키고 있는 패러디들은 패러디가 고도의 창작 행위인가, 아니면 예술의 본질을 포기한 절도행위인가라는 가치관단을 필요로 한다.

창작행위? 절도행위?

일본 TV드라마를 베꼈다는 혐의를 받고 조기종영예정인 문화방송의 ‘청춘’을 비롯 드라마, 광고, 영화 등 포괄적 의혹을 사고 있는 패러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인터넷패러디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허무맹랑한 내용과 원색적인 표현에 실망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혔듯 원작에 대한 철저한 이해없이 ‘저속한’ 수준의 웃음을 유발하거나 원작에 대한 단순한 아우에 지나지 않은 패러디는 ‘도둑질’에 지나지 않는다.

패러디란 말은 ‘대응 노래(counter-song)’라는 뜻의 고대 희랍어 ‘parodi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때 접두어 ‘para’에는 ‘대응하는(counter)’, ‘반하는(against)’, ‘이외에(besides)’의 뜻이 있다. 알 수 있듯이 패러디는 단순히 대상을 모방하는 양식이다. 원작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야말로 ‘꼬집기’와 ‘가려운 데 긁기’의 맛이 살아나지 않으면 서툰 모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청출어람, 진정한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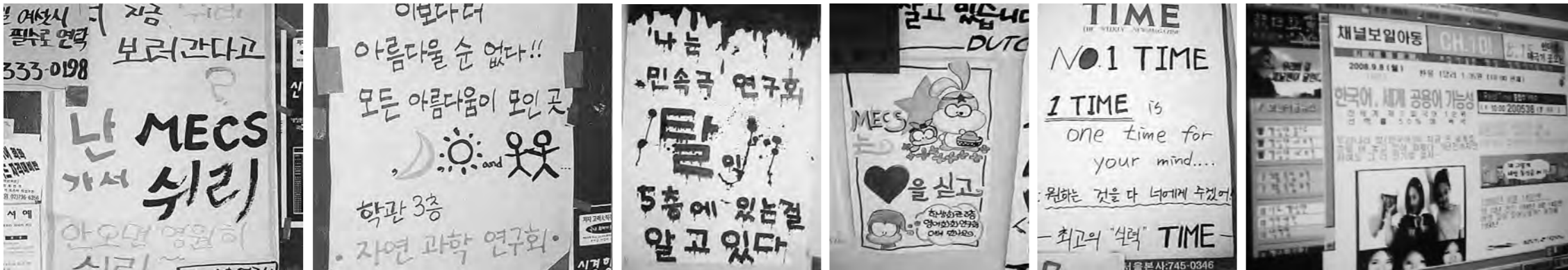
현재 패러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기존 우리 사회의 통념을 자극적이면서도 유쾌하게 깨기 때문이다. 패러디는 독립적인 창조의 양식이다. 그렇기에 패러디는 청출어람(靑出於藍)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모방하는데 그친다면, 또한 그 모방이 조롱과 아우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어설픈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애 이국통일이러도 돼야 삼국통일이 되지” 사진=딴지일보

원작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꼬집기’와 ‘가려운 데 긁기’에 성공한 패러디아말로 진정한 예술인 것이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패러디 사이트

검색엔진 패러디

- 가미니 <http://user.chollian.net/~striball>
- 아호 <http://members.iWorld.net/khoda/>
- 돌마니 <http://myhome.shinbriro.com/~laser101/index.html>

주요언론 패러디

- 보일이동 <http://www.ch10.com/webzine-v3/boiladong>
- 딴지일보 <http://ddanji.netstgo.com/>
- 한스키즈 <http://www.geocities.com/NapaValley/1242/index1.html>

- <http://www.truenet.co.kr/schizo/9804/main.htm>
- 수세미일보 http://www.sponge.co.kr/EVENT/SUSEMI/SU_MAIN.htm

주요기관 패러디

- 청기와 <http://members.tripod.com/~vitaminC/index1.html>
- 구라대학교 <http://hugsvr.kaist.ac.kr/~overclas/>

외국 패러디사이트

- B파일 (‘X파일’) <http://members.aol.com/TheBFfiles/bfiles.htm>
- Noose Week (‘뉴스위크’) <http://www.geocities.com/TelevisionCity/2451/index.html>
- Playbuoy (‘플레이보이’) <http://www.geocities.com/NapaValley/1242/index1.html>

동악의 패러디, 대자보에서 ‘감 잡았어’

요즘 동악에도 패러디가 활개를 친다. 바로 동아리, 과 소모임, 동문회 등에서 새내기들을 모집하기 위해 동악 이곳저곳에 붙여놓은 홍보 대자보의 문구 대부분이 패러디이기 때문이다. “나는 니가 어제 다른 동아리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동아리가 학과 5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뒤고 싶니? ~에 와봐!”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감 잡았어’, ‘한방에 가르친다.’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는 곳’ 등등. 학생들이 쉽게 접한 광고 카피, 유행어, 영화제

목 등을 인용해 새내기들을 ‘유인’ 하는 이러한 대자보는 단순히 동아리·소모임 등의 활동을 나열한 대자보 보다 인기가 좋다. 비주얼 세대인 신세대에겐 친근함과 자극적인 재미를 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딱딱한 것 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신세대 경향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구들은 거의 기존의 것에 대한 패러디라기 보다는 창조, 풍자가 결여된 모방에 지나지 않아 아쉬ვი만 하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메아리

부실공사

▲광복이래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또 가 하듯 50여년의 세월을 달려왔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는데에만 전념한 채 일제식민시대나 독재정권시절의 매국, 부정과 부패 등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했고, 그 연장선에서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시달려 왔다.

이로인해 우리는 온천지에 널려 있는 부패와 부실속에서 살고 있는 불운의 주인공들이었다. ▲97년 9월 일본은 지난 1965년 이래 30여년간 지속돼온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통보해왔고, 금년 초 새 어업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과 재협상을 실시하였다. 새 어업협정 발표이후 연근해 어업선만 하더라도 3천여척이 조업을 중단, 실직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등 관련업계는 줄줄이 도산·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협정체결이후 해양수산부가 밝힌 어민피해 규모는 1천 3백 90여원이었으나, 이후 한나라당에서 1조원에 이르러다고 공박할정도로 예상피해액의 규모에서조차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등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태도는 부실투성이었다. 그간의 해양수산부 태도는 ‘끄떡없었다’는 현실방식기 ‘내공살기’에 다를 바 없었다. 이리나 10여년 이상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왔던 일본과의 협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우리가 냉정해야 할 국제관계에서 과거사에 매몰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았다는 하는 자성의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우리 정부는 또 한번의 부실공사를 자행했음이 분명하며, 그 뒷감당은 기껏해야 책임자의 경질 정도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과거를 통해 알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어민보상 특별법을 제정한 다. 추가교섭을 한다는 등 뒤늦은 사대수

습에 나섰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에 이어 한·중간의 어업협정도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부디 힘없는 백성들이 또 한 번의 부실공사로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정희정 대학부장 dg1971782@mail.dongguk.ac.kr

자양소식

학교 안에서

맑스 철학연구회 새내기 교양강좌



동구 사회주의 불라이후 맑스주의에 비판 세력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맑스주의에 대해 새내기들과 함께 생각하는 강좌, 동리 성원이 강사로 나서서 ‘대학, 대학생과 맑스철학’, ‘맑스철학은 미래사회의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다.

오는 29일까지(매주 월요일 오후 5시). 맑스 철학연구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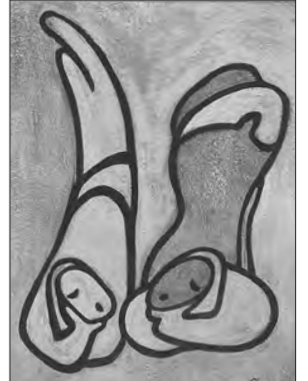
학교 밖에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며

꿈과 현실의 장면 전환이 유난히 많은 이 작품은 79년대 사회 현실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극의 밑바탕은 사회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정희 부패에 대한 열려이다. 코러스, 탈춤 장면, 랩과 댄스 등 일반관객에게 친숙한 장면을 재현해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8일까지. 방송대 후문 미당 씨실 극장에서. 문의 742-4994

창작마을 단막극제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순수 공연 예술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사랑의 티켓 참가 극단인 창작 마을의 작품 전. 정형진 작·장두이 연출의 ‘발칙한 녀석들’, 박승만 작·장두이 연출의 ‘K씨 이야기’, 김수미 작·박해선 연출의 ‘귀여운 장난’이 각각 10일씩 공연된다. 한국 희곡 협회 후원으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연극의 여운을 길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달 25일까지. 명동 참고 극장에서. 문의 319-8020



소나기

휴대전화

△휴:휴지 대:대신
 전:전 화:화장지를
 씁니다. -중어중문?
 △복소리 크게 자랑은
 아니다.
 △그래 니 폰소리 크다.
 △'날좀보소', '새터링'
 모두 그만 들고 싶다.
 △있으면 족해! 없으면
 미개인.
 △태우야 휴대폰은
 안테나가 있어야
 터진다. 빨리 안테나
 구입해라. 폰이 시계나?
 △근대의 무전기에서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았다. 무전기 만큼
 휴대폰이 커졌으면,
 △내가 어디에 있던
 너(폰)는 항상 내곁에
 있다.



△석달치 한꺼번에 내고
 난 후 난 라면만 먹고 산다.
 △휴대전화로 엄마에게 돈 아껴가며
 산다고 말할 때 가슴 아프다. 헉! 헉!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강의실과 교수님의
 외침은 휴대전화에 의해 잠식당해 버렸다.
 이젠 때와 장소를 못가리던 원시인.
 -동태개혁 추진 위원장
 △또 다른 여자를 만날때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C.C.들! 핸드폰이 무슨 위키토키인 줄
 알아. 아예 무전기 하나 사지 그래.
 △C.C.들의 속삭임에 핸드폰도 닭살이
 돋는다.
 △우썬 나는 공중전화 매고 다녀야지.
 핸드폰은 비싸서...
 △벨소리는 단연 찬찬찬이 으뜸. 차디찬
 글라스에 ~ ~
 △강의실에서 핸드폰 울리는 사람들.
 자진해서 머리 박읍시다.
 △내건 국내최초 생활 방송형인데... 근데
 수신이 영...
 △돈도 많다. 난 삐삐 요즘도 박찬데.
 △휴대전화 사용 예티켓 학교 만들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도서관에서 뛰지 좀 맙시다.
 △내 남자친구가 전화하면 불안하다.
 씨터폰이거든. 제발 공중전화 근처에서
 전화해!!
 △남산에선 절대 안 터진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무슨 핸드폰이야!
 △1천5백만이 사용하지만 매너를 지키며
 사용하는 사람은 1천5백명밖에 안된다.
 △학교에 공중전화 많으면 휴대폰 안 산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 휴대폭탄!
 △똥똥이들, 제발 진동으로 해놓지마.
 느끼지도 못하면서.
 △어이 사오정들 제발 진동으로 좀 해봐.
 듣지도 못하면서.
 △대학생이 무슨 전화가 필요하냐? 삐삐가
 최고!
 △연애하는 사람은 필요하다.
 △있어두 한 번도 안 울린다. 삐삐보다
 서글픈 족쇄.
 △대두는 최신행(조매난 전화기) 쓰지
 맙시다.

1267호 동대신문을 읽고

2면과 3면 중복된 기사 · 3면 형평성 부족

장학금 관련기사 문제제기 차원에서 그쳐 아쉬워

대학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족하고 미성숙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바로 언론이다. 언론은 연습이 있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마치 수련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실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실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분야이다. 따라서 학생기자도 기성 신문사 기자에 버금가는 전문성과 직업의식이 요구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발행된 동대신문을 보면 이러한 전문기자 정신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몇가지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선발에 관한 기사의 경우, 서울보도면(2면)과 경주보도면(3면)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보도

하고 있다. 서울보도면에서 기사 후반부에 경주캠퍼스 인터넷 선발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경주보도면에 또다시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아쉬웠다. 둘째, 경주보도면(3면)에 게재된 신입생 장학금 지급문제 관련기사의 경우 기사내용이 문제제기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어 아쉬웠다. 합리적인 장학금 지급방안을 전문가 의견이나 타 학교의 지급 방법등을 비교하여, 제시해 주었다면 독자들에게 유익한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셋째, 3면 보도내용 중 해오름식 관련 기사의 경우, 상경대, 총여학생회, 동아

리 연합회등 3개 기구의 해오름식 소식이 보도되었는데, 총여학생회 해오름식 안내는 구체적인 행사 내용까지 보도한 반면, 상경대와 동아리 연합회 해오름식은 짤막하게 장소와 시간만 보도해 주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기본원칙인 형평성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기사가 좀더 취재노력을 기울였다면 상경대와 동아리 연합회의 행사 내용도 보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모니터링

최진봉
언론문화연구소장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을 수 있다면

-우물

가물에 마르지 않고
 홍수에도 넘쳐나지 않으며
 여름엔 외려차고
 한겨울에 얼지 않는,
 금새라도 바닥이 닿을 듯 알아보여도
 끊임없이 맑은 물 샘솟는
 우물
 우리의 사랑이 그와 같을 수 있다면
 불벼락 날리는 험한 길
 고단한 몸 잠시 쉬어갈
 성현이의 목을 맘껏 축여줄 수 있겠네
 과랑과랑 솟구쳐
 싹틈없는 식당안에
 소낙비같이 팍팍리는
 어머니의 낮도 시원스레 씻어드릴 수 있겠네

유병문(불교대 불교학과 · 98년도 총학생회장)

교수 개인사정으로 인한 강의변경 자제돼야

자칫 무성의함으로 보일수 있어 ... 사제시간 불신초래

우리학교에는 수강정정기간이 있어 본인에게 보다 적합한 강의를 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수강정정기간을 미리 염두해 두고 수강신청을 할 때 학점제우 기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수강정정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수업시간이 안정된다. 그러나 성실성의껏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시간표를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같은 과 동기의 후념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교양강좌 인원이 초과되어

하는 수 없이 다른 학과 전공수업을 들는데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나가시는 타학교의 강의시간이 중복돼 하는 수 없이 수업시간을 조절해야 하니 이의있거나 시간이 안되는 사람은 수강정정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학교 수업 때문에 우리학교 전공 수업시간을 바꿔야 하는 것도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던만큼 그보다 방학전에 한 학기의 수업시간표가 결정되는데 다른 학교와 수업이 겹치는 것을 몰랐다는 교수님의 무성의한 답변에 더욱 화가 났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업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다. 일주일 3시간 3학점자리 강의는 보통 2시간과 1시간으로 나뉘어 이루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양강좌는 3시간 일주일로 2시간만 진행하기도 한다. 교양강좌가 부족한 시점에서 수업에 무성의한 몇몇 교수님들의 방침은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의욕저하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교영전 (사과대 사회과학계열)



정우식 동문

본교 서울캠 철학과 88학번으로 91년도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우식 동문이 현재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정 동문은

정우식 동문에게 따뜻한 손길을 바랍니다

현재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안중은 상태이며, 3천만원이 넘는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우식동문회가 모임에 서는 이번주 하나의 홍보를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과 21일 영화제를 준비중이며, 다음달 24일에는 정우식동문 후원의 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국인의 자비와 사랑으로 정우식 동문에게 조그마한 정성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전 동국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바랍니다.

계좌번호: 313-04-583630
 정우식 동문회

TEL : 22603491 · 2 / (0561) 7702057 · 8
 FAX : 22791270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 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다향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개살간풍기(1500)
화	열무비빔밥(1300)
수	소고기야채밥(1300)
목	떡볶이백반(1300)
금	돈게찰볶음(1500)
	소고기미역볶음밥(1300)
	후라이드치킨(1500)
	하이라이스(1300)
	잡탕밥(1500)
	어묵야채볶음(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시골우거지탕(1300) 생선까스(1300)
화	한치화도둑(1500) 생선까스(1300)
수	불고기백반(1500) 설렁탕(1300)
목	튀김도둑(1300) 불고기백반(1500)
금	비빔밥(1300) 커리라이스(1300)
	마피면(1300) 비빔밥(1300)
	골뱅이시어묵(1500) 순대야채볶음(1300)
	삼선볶음밥(1300) 골뱅이시어묵(1500)
	오징어탕수(1500) 후령크리채볶음(1300)
	두부김치(1300) 오징어탕수(1500)

(단위:원)

목명글

축하합니다

△중범이 오빠의 복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팬클럽짱
 △준호 동생, 지은! 같은 동국인 된 거 축하! -28공익두
 △역교 98 '리'와 건국 99 '훈'의 백일을 축하합니다. -떨거지들
 △선희의 PCS개통을 축하하며. -송·은
 △우리 이쁘고 멋진 고품들, 탈수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곰천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리랑 98&99공연 너무 상쾌하고 귀여웠어요. -고학번
 △제3언론 만드느라 진보언론연구회 수고하셨습니다. -M.S.
 △99 동아리박람회 잘 마무리하신 동연식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물 여섯의 고독사
 △우리의 이쁜 고품들 프로젝트 수행하는라고 정말 욕보였습니다. 멋진 고품도, 악어도, 그리고 소도 또 붕붕도... -대문

열심히하십시오

△불대 새날 학교의 성공을 위하여!
 △경주캠 국제관계학과 화우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학교주변을 서성거리는 수백마리의 고양이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DUBS 새내기들의 멋진 생활을 기원하며...
 △옛(?) 친구와 함께 하는 요즘 너무 행복하다. -M.S.
 △동연식구들에게 한 말씀. 앞으로 행사 때는 동아리의 사정도 생각해서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우리 이쁜이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제발 밥좀 많이 드세요. -dgpress

은방글

축하합니다

△국통 96미영 우리의 300일 정말 축하해! 학교생활 열심히 하구 널 영원히 사랑해. -빨랑 결혼(99년 11월 21일 오후 3시)
 △고프고 오빠 △부일라 재대 축하한다 2박 3일간의 군 생활 힘들었지 사랑한다. -조경 98학번
 △지급 휴학중인 마음소리 선배 광호님의 생일을 축하드려요. 덤으로 사랑하는 후배 경희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해용. -서니가
 △재명야! 생일 축하하고 올해는 꼭 여자친구가 생길까 바라다. -98학번 동기 은주, 길할이가

△성태님(관경 야)! 복학을 축하합니다. △재명, 지영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일문 학생회 일동
 △하영야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태어나서. -처리가
 △상영야 생일 축하해 △인선야! 2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올해는 인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공부! 연애! [하회] 모두 모두 잘하고 한결 더 성숙된 모습으로 너 자신을 가꿔가길 바래! (조경화과 3학년 학우들). -23일 생일인 인선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필하모니 13기 여러분, 동아리 열심히 이끌어 주세요. 늘 수고하고 있다는거 알고 있어요! 파이팅!!
 -11기 선배가 P.S 신입생도 많이 외주세요. △동국연극회! 신입생 환영 공연을 위해 모두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우리모두 사랑합니다. -12기
 △술메리가 신입회장이 되신 윤성호(안공)학우에게 축하드리며, 한해동안 수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적 베이스

열심히하십시오

△게릴라. 우리 힘내서 열심히 싸워봅시다요. -도서관지기
 △대성야! 98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학년들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 그리고 과대된 거 축하해. -98동기가
 △영재야!(한양대98) 이제 정신차리고 공부좀 해. 전공서적은 다 사냐? 내가 보내준 돈으로 얼마 당구친건 아니지?
 -경주의 누님
 △저희 불뿔가 20기를 받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선배들이지만 후배들 앞에 열심히 할께라 약속합니다. 동기들야! 힘내구, 너희를 믿는다. -윤석 19기 파이팅!

알립니다

△Rock Band 아우락(OUROCK)에서 99학번 새내기를 모집합니다. 파트는 모조리 다 모집하구요. 꼭 연락하세요.(0118-397-4582)